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기준 20개서 10개로 완화

신규지정 확대·상권 활성화 기대
조례개정안 의회 의결 거쳐 시행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지원 가능
6월 제1호 ‘우수영 상점가’ 지정

해남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한다. 밀집기준 완화로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확대가 기대된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밀집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로 완화한다.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위한 조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은 올해부터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밀집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로 완화하는 협의를 진행,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8월 말 해남군 의회 의결 후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10개이상 점포밀집, 해당 구역내 상시 영업중인 상인의 1/2이상의 동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해남군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문내면 동외리 일원에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우수영 상점가는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상권활성화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총력 대비
진도군보건소

진도군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경로당 242개소에 손소독제 242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861명으로 7월 첫째 주 91명과 비교하면 8.5배 급증했다.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의 합병증과 중증화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해 감염취약시설 6개소에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을 배부하여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른 개인위생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바로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용복진도군보건소장은“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하계휴가지 등에서는 사람 간 접촉이 늘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이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실내 환기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영암군, 2기 걷기지도자 양성
내달 20일까지 선착순 모집

영암군이 올바른 걷기 운동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2기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 참여자 3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걷기 실천율 1위에 오른 영암군은,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황토길 2개 구간을 조성했다.

이곳을 포함한 다양한 영암군의 걷기길을 활용해 올바른 걷기 방법과 문화 정착을 주도할 걷기지도자 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5월, 1기 과정에서는 총 37명의 걷기지도자를 배출했고 이들의 커뮤니티도 개설·운영해 군민 스스로 걷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2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1일 4시간 지도자의 역할 및 보행자세 측정상담, 걷기의 이론과 실제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영암군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수강신청을 받고 수강료는 무료다.

개인 부담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올바른 걷기 운동을 확산하는 건강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양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470-6530)에서 한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걷기지도자 과정은 영암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완도군, 30일까지

완도군은 상반기에 개인 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2개 이상의 경영체 등록된 경우는 한 분야만 신청 가능하다.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 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 후 11월 중 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정책발행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신분증과 수령증 지참 후 관할 금융기관(농·수·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한,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신안군, 섬향기 담은 꽃차 출시
수국 등 6종류

신안군은 8월 말부터 사계절 꽃피는 신안의 섬 향기를 담은 6종의 꽃차를 출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꽃차는 신안 섬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핀 꽃으로 따서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찌고 덖었다. 지도 선도의 마리골드, 증도 병풍도의 맨드라미, 자은도의 목련꽃, 비금도의 해당화, 도초도의 수국, 안좌도의 팬지꽃 등 6종이다.

이번 꽃차 출시는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1섬 1정원’, ‘사계절 꽃 피는 섬’ 등의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각적으로 꽃 축제를 즐기고, 꽃차를 음미하며 오감으로 꽃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꽃차를 생산하게 됐다는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신안은 사계절 늘 꽃이 피는 섬을 가지고 있다”며 “꽃과 관련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관계자들이 을지연습 일환으로 방독면 착용법을 배우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민·관·군·경 합동으로 을지연습을 시행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민·관·군·경 합동 을지연습 완료

해남군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민·관·군·경 합동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여 실시된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국지도발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9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

19일 해남군수 주재로 최초상황보고회

를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기관 소산 훈련, 전시 창설기구 운영 등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전시 현안 과제토의, 민방공 대피 훈련 등 실천과 같이 훈련이 진행됐다.

22일 오후2시부터 진행된 민방공 대피 훈련은 공습 경보와 함께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들과 군민들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육군 제8539부대 1대대에서 방독면 및 방호복 착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 지도읍 뽕땅 토요 먹거리장터 2000명 발걸음

24일 시범 운영 3000만원 매출

신안군은 지난 24일 지도읍 첫걸음터 일원에서 열린 ‘뽕땅 토요 먹거리장터’에 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25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도읍과 증도면 입자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장터를 첫걸음터에서 첫 시범 운영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난타, 장구공연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의 통기타 공연 등 댄스타임, 노래자랑대회를 중심으로 주민화합의장 분위기가 연출됐다.

행사가 열린 첫걸음터는 첫걸음유통과 홍보,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난 2015년 문을 열었다. 수산물 판매장 20개소가 입점돼 있어 상인들이 직접 조리한 모듬전, 홍어·병어회무침 등을 1만원의 일관된 가격에 판매했다.

먹거리장터를 이용한 시민들은 신안만의 축제를 느끼고 즐길 수 있었다는 평이다.

A(47·광주 북구 용봉동)씨는 “늦은 여



신안군을 찾은 관광객들이 ‘뽕땅 토요 먹거리장터’를 이용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류휴가일정으로 신안 증도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먹거리 장터가 열린다는 안내 현수막을 보고 첫걸음터를 찾게 됐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는 지역 바가지 축제가 아닌 지역민들의 단결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축제였다. 신안에서 지속적인 각 읍면의 특징을 보여주는 행사들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범적으로 운영된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총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신안군은 지속적인 지역 축제를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규 지도읍장은 “신안군 증도와 입자도를 지나는 중간 길목에는 지도읍이 있다. 지도읍에는 계절에 따라 추절, 육절, 오절 등 불워는 명칭이 다른 새우절을 유통하는 첫걸음터와 민어, 갯다리, 병치 등 경매·유통이 이뤄지는 송도위판장이 있어 산지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며 “사계절 꽃을 주제로한 축제를 여는데 이어 읍면의 수산물 특성을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를 지속 편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